



2025년도

하이조즈 패밀리 프로젝트

더 나은 꿈과 희망을 향해 함께할 우리



국가보훈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제복입은 영웅'들...
그들의 유가족분들에게 우리는 이 빛을 갚아야 합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말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한 제복군무자로 인해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답으로 제복입은 영웅들의 어린 자녀와 보호자가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대상]
전몰·순직 군경의 아동·청소년 자녀와 그 보호자(배우자 등), 24세 이하 및 보호자로 대상 확대
(’25년 2월 기준: 자녀 303명, 보호자 187명)

‘히어로즈 패밀리’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다채로운 행사 기획 및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기념일 축하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합니다.

- 생일 선물
- 크리스마스 선물
- 신학기 선물
- 스무살 축하

02

힐링 및 국제교류캠프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도와 건강한 일상생활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 진로캠프
- 힐링캠프
- 국제캠프

03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 명예멘토
- 청년멘토
- 패밀리 멘토

04

컨설팅



자녀와 보호자의 심리적, 정서적, 재무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일대일 심리상담
- 그룹상담
- 특강 및 프로그램

<2024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일자: 2024. 05. 24(금) - 26(일), 장소: 파라다이스 시티, 참가자: 23가구 57명

히어로즈 패밀리들끼리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치유 그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

NEWS 기사

▶ Video 1

▶ Video 2



<2024 히어로즈 패밀리 일상의 멘토링>

일자: 2024. 07. 16(화), 장소: 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 바이 메리어트 서울, 참가자: 60명

각분야의 전문가인 명예멘토 및 대학생 청년멘토, 멘티가 처음 만나 함께 교류 및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여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시간으로 구성



〈우리, 함께 프로젝트〉

일자: 2024. 05. ~ 07, 장소: 서울 신사역 인근 스튜디오, 참가자: 26가구 85명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의 전속 사진가로 알려진 김명중 작가가 참여해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젝트



〈국제교류캠프〉

일자: 2024. 08. 26(월)–31(토), 장소: 미국 워싱턴 D.C., 참가자: 16명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TAPS 기관과의 교류활동 및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헌화, 9.11 테러 추모관 방문, 문화체험 등의 교류 프로그램 구성



*TAPS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

일자: 2024. 10. 5(토), 장소: 여의대 한강공원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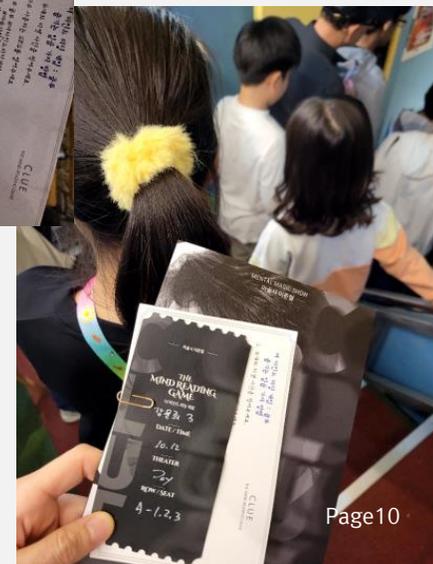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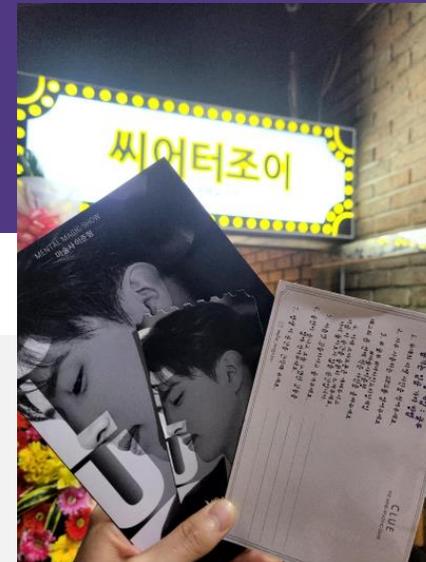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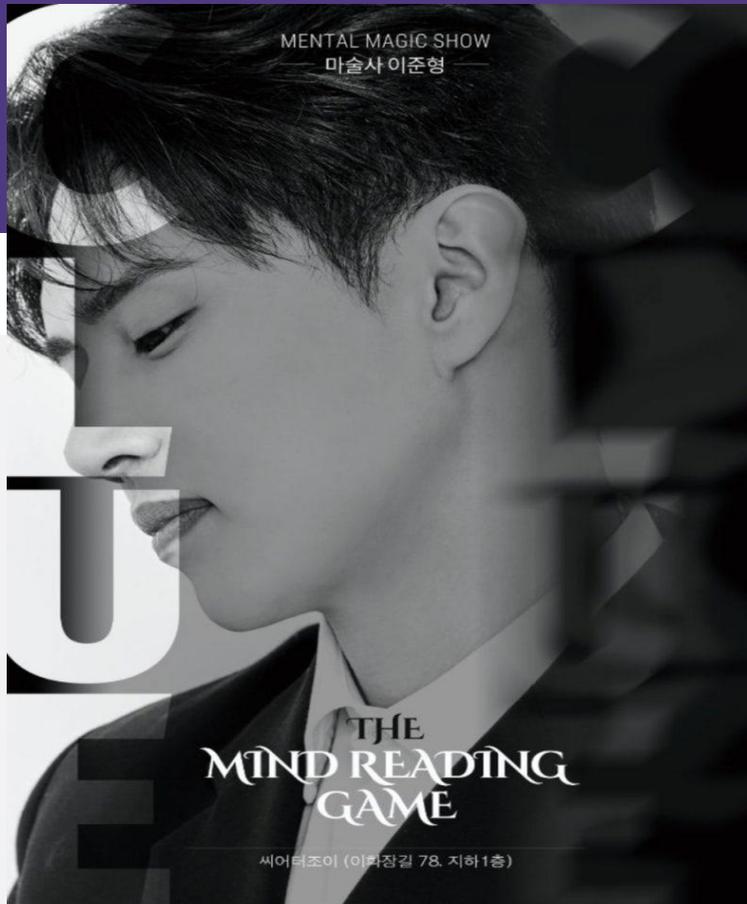
기업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히어로즈 패밀리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티켓 지원



<더 마인드 리딩 게임:클루 마술공연>

일자: 2024. 10. 11(금)~12(토), 장소: 씨어터 조이극장, 참가자: 5가구 12명

명예멘토 후원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마술공연에 히어로즈 패밀리를 마술공연에 초청





당신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멘토링이 그들을 미래로 이끄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